국제 금융 속보

국제금융센터
Flash News
2022. 4. 30

해외동향부 (제 6195)
오정석 | 전문위원

■ **주요 뉴스:** 미국 3월 PCE 가격지수 40년래 최고치, 근원 PCE는 전월보다 둔화

○ 유로존 4월 CPI 역대 최고치 경신, ECB 7월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

○ 러시아,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지급으로 디폴트 탈피

○ 유로존 1분기 GDP(예비치), 예상에는 부합했으나 전분기보다는 부진

■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대형 IT기업의 부진한 실적과 3월 PCE 물가 등이 영향

주가 하락[-3.6%], 달러화 약세[-0.6%], 금리 상승[11bp]

○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Amazon 등 대형 기술주 실적 부진으로 금년 최저치

유로 Stoxx600지수는 1분기 성장률 정체에도 상승

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주말을 앞두고 최근 강세에 대한 경계감으로 하락
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4%, 0.9% 상승

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월 PCE 물가의 영향으로 상승

독일은 4월 CPI의 가파른 상승으로 4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63.7원, +7.7원)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4/29일	4/2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31.9	4,287.5	-3.63%
	유럽	450.39	447.07	0.74%
	중국	3,047.1	2,975.5	2.41%
	일본	휴장	26,848	-
	한국	2,695.1	2,667.5	1.03%
환율	달러지수	102.96	103.62	-0.64%
	유로화	1.0545	1.0499	0.44%
	엔화	129.70	130.85	0.89%
	위안화	6.6085	6.6266	0.27%
	원화	1,255.9	1,272.4	1.30%

		4/29일	4/28일	전일대비
국채 금리 10y	미국	2.93%	2.82%	11bp
	독일	0.94%	0.90%	4bp
CDS 5y	한국	40bp	40bp	-
	중국	78bp	78bp	-
위험 지표	EMBI+	393.71	411.24	-4.26%
	VIX	33.40	29.99	11.37%
원자재	WTI유	104.69	105.36	-0.64%
	구리	439.5	441.4	-0.42%
	금	1,896.9	1,894.5	0.13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**美 3월 개인소비지출(PCE) 가격지수 40년래 최고치, 근원 PCE는 전월보다 둔화**

○ 상무부에 따르면 3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6.6%로 전월(6.3%)과 예상치(6.4%)를 모두 상회하며 `8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.

○ 다만 근원 PCE는 5.2%로 전월과 예상치(각 5.3%)를 하회. 근원 PCE가 직전월보다 낮게 나온 것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NYT는 인플레이션이 일부 둔화 조짐을 보였다고 보도

○ Capital Economics는, 이번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예상보다 조금 빨리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강화

○ CNBC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다음주 5월 FOMC에서 50bp의 빅스텝과 이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

○ 한편 3월 개인소비지출은 높은 물가에도 불구 전월 대비 1.1% 증가하며 예상치(0.7%)를 상회했으며, 개인소득도 0.5%로 예상치(0.4%) 상회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**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(CPI) 역대 최고치 경신, ECB 7월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**

○ 4월 CPI는 전년동월 대비 +7.5%로,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연간으로 38% 급등한데 주로 기인.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3.5% 상승하며 예상치(3.1%)를 상회

○ Capital Economics와 SG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ECB가 물가안정에 나설 것이라며 6월 양적완화 종료와 7월 첫 금리 인상을 예상. ING는 9월 인상을 예상하면서 경제 전망에 따라 7월 가능성도 제기

■ **러시아,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지급으로 디폴트 탈피**

○ 재무부는 `22년 만기 국채 이자 및 원금 상환액 5.6억 달러와 `42년 만기 국채 이자 8,440만 달러에 대한 지급을 달러화로 이행했다고 발표

○ 러시아는 그동안 루블화로 지급하겠다고 고집해 왔으나 해당 자금의 3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5.4일 공식적인 디폴트를 앞두고 결국 달러화로 결제

■ **유로존 1분기 GDP(예비치), 예상에는 부합했으나 전분기보다는 부진**

○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.2% 증가하며 예상치에는 부합했으나 4분기(확정치) 0.3%보다 둔화. 러-우크라이나 전쟁과 오미크론 확산 여파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

○ Oxford Economics는, 2분기에는 경제 재개방의 영향이 나타나겠지만 러-우크라 불확실성과 고인플레이션 등으로 유로존의 앞날이 험난할 수 있다고 전망. 유로존 최대 경제권인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시 금년 -2% 가능성(분데스방크)

■ **러시아 중앙은행, 경기악화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17% → 14%로 인하**

○ 러시아는 지난 2월 루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9.5%→20%로 대폭 인상했으나, 최근 루블화 가치가 안정되고 서방의 제재로 경기가 크게 악화하자 이달 8일 3%p에 이어 29일 또다시 3%p 인하

○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는 서방의 제재로 금년 러시아 성장률이 8~10%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말까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

■ **BofA,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금년 S&P500 전망치 하향조정**

○ 러-우크라이나 전쟁, 1분기 GDP 감소,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등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며 S&P500 목표 주가를 기존 4,600에서 4,500으로 하향

■ **Goldman Sachs, 미국의 금융환경은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은 상황**

○ 3월 FOMC 이후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연말까지의 금리 인상폭은 100bp 이상 높아졌지만 금융환경은 그에 상응할 정도로 긴축되지 않았으며, 따라서 연준은 보다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설 필요

주요 경제지표

■ **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4/29 현지시각 기준)**

○ 미국 4월 시카고 PMI: 56.4, 전월(62.9), 예상치(62.0)

○ 미국 4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: 65.2, 전월(59.4), 예상치(65.7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oh@kcif.or.kr